



포르세 '파나메라'



도요타 'RAV4'



닛산 '무라노'

## 신차로 2009년 경기 불황 넘는다

내년에는 자동차업체의 신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극심한 판매부진으로 시련을 맞았던 자동차업체들이 불황을 뚫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모델 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산차업체는 고연비의 실속형 모델 출시는 물론, 차급도 경차부터 최고급 대형차까지 다양화하는 등 내년에만 10여종의 신차를 선보인다.

수입차업체 역시 기존 간판 모델들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맞불을 놓을 태세다. 일본차 브랜드인 도요타의 한국 진출도 업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대차 'VI' 등 국산 신차 10여종 쏟아져 =현대차는 내년에 '에쿠스'의 후속 모델인 'VI(프로젝트명)'를 출시한다. '에쿠스'보다 길이와 폭이 각각 40mm, 30mm 늘어난 국내 최대 크기의 세단이다.

후륜구동 플랫폼을 적용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승객을 보호하는 '프리세이프 시트벨트' 등 각종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된다.

현대차는 올해 출시된 쌍용차의 '체어맨 W'는 물론, BMW 7시리즈와 벤츠 S-클래스 등 수입차와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델은 배기량별로 3.8ℓ와 4.6ℓ가 각각 출시된다.

현대차는 또 내년 3월께 신형 '그랜저TG'를 출시하고, 7월에는 '투싼'의 후속 모델인 'LM(프로젝트명)'을 시장에 내놓는다.



현대 'VI' 컨셉트카

**최고급 세단서 하이브리드카까지 총출동**  
**현대차, VI·그랜저TG·YF 등10여종 출시**  
**수입차도 중소형 세단·SUV 등으로 승부**

이러 10월에는 현대차의 베스트셀러인 '쏘나타'의 후속 모델 'YF'가 나온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되며, '투싼' 후속인 'LM'에도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아울러 7월께 출시되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는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첫 국산 하이브리드차다. LPG(액화석유가스)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해 ℓ 당 연비가 21.3km(가

솔린 차량 기준 환산)로 높다. 차값은 2천만원 선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130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해줄 계획이어서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가야차는 또 준대형급 신차인 'VG(프로젝트명)' 출시를 통해 현대차 '그랜저TG'와의 경쟁에 나선다. GM대우는 '마티즈'의 후속 모델을 시장

에 선보인다. 배기량 1,000cc급 모델로, 가야차의 '모닝'과 맞대결이 예상된다.

◇수입차, 중소형세단·컴팩트 SUV 등으로 승부 =수입차업체도 내년을 단단히 버리고 있다.

특히 도요타자동차의 국내 상륙이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도요타는 10월 '캠리'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 SUV인 'RAV4' 등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도요타는 현재 렉서스 브랜드로 국내에 진출해 있지만, 도요타라는 이름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우디코리아는 내년 1월께 2,000cc급 터보 직분사 엔진을 장착한 '뉴A5 쿠페' 모델을 출시한다. 또 상반기에만 온·오프로드 SUV인 '뉴 Q5'와 스포츠카 버전인 '뉴 TTS'를 잇따라 내놓는다.

닛산은 '무라노'와 '로고' 등 SUV 모델 외에도 2월께 4세대 스포츠세단인 '알티마'를 선보이고, 7~8월에는 480마력의 '뉴GT-R'를 출시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컴팩트SUV인 '뉴GLK-class'를 앞세워 국내시장 공략에 나선다. BMW코리아는 기존 '1시리즈'의 품격을 높인 '1시리즈 쿠페'를 상반기에 출시한다.

스포츠카 대명사인 포르세는 내년에 4도어 후륜구동 스포츠 쿠페인 '파나메라'를 내놓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에쿠스·투스카니·쏘렌토 '역사 속으로'

각각 VI·제네시스 쿠페·XM에 자리 넘겨 줘

기아차 준중형 '세라토'도 '포르테'에 비통

국산차업체가 신차 경쟁에 본격 뛰어들면서 그동안 국내·외 도로를 누볐던 자동차 모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의 '에쿠스'와 '투스카니'가 생산이 중단된 데 이어 기아차의 '쏘렌토' 등도 단종을 앞두고 있다.

'에쿠스'는 지난 1999년 출시 이후 국내 최고급 승용차의 대명사로 군림해 왔다.

9년간 국내에서 총 11만8천여대가 팔렸으며,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초대형 세단 'VI(프로젝트명)'에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에쿠스'는 국내 대형차 시장이 수입차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차가 27개월간 5천200여원을 쏟아부은 모델이다.

국산차 최초로 3년, 6만km 무부수 정비프로그램인 '플래티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프리미엄 마케팅을 본격 도입했다.

지난 2001년 열린 '2002 월드컵 기념 공연'과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의 의전차량으로 사용되는 등 수많은 명사

를 보필했다. 이에 앞서 '투스카니'는 지난 7월 생산을 멈추고 '제네시스 쿠페'에 국산 쿠페모델의 바통을 넘겨줬다.

'스쿠프'(1990년 출시)와 '티뷰론'(1996년 출시) 등에 이어 지난 2001년 9월에 출시됐으며, 국내 스포츠카의 명맥을 이어왔다.

'투스카니'는 해외에서 더 인기를 끌었다. 8년여간 27만대가 수출돼 국내 판매량(2만6천여대)을 웃돌았다.

또 1세대 2.7모델의 경우 6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돼 뛰어난 가속성을 과시했다.

기아차의 '쏘렌토'도 이달 말로 생산이 중단된다. 2002년 2월 고급 SUV를 지향하며 출시된 이후 오프로드 동호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3만여대가 팔렸고, 해외에는 60만대가 수출됐다. 내년 상반기 출시예정인 'XM'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밖에 기아의 '세라토'도 지난 8월 출시된 '포르테'에 자리를 넘겨줬다. 2003년 출시 이후 6년간 기아차의 간판 준중형차로 인기를 끌어들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 '에쿠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 남동성당사거리) (062) 227-9940  
 총창점 (금남공평빌딩) (062) 227-9970

**등대바다**

등대바다 생선 식당

등대바다 생수점

TEL (062) 682-9688  
 681-0112

**보양음료 숙취해소**

권유기능보양음료소프제스김순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물어 드십니까?**

보양음료는 남여노소 모두 꼭 보양음료입니다.

시·군별 대리점 모집·영입사원 모집

062-267-7753  
 상담 및 구매문의 011-9612-3700